

원통하고 분하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23년 성수면민의 날 행사(10.3) 무대낙상사고 피해자의 울부짐 -

성수면 주최의 면민의 날 행사에서 무대(1.2m)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실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무대바닥이 뒷면벽과 떨어지게 무대를 설치하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행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사고입니다. 주최·주관측의 행사 전 무대설치나 안전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과 확인 작업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낙상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행사무대였습니다.

성수면민의 날 행사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동반되고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출향민 등을 포함한 800여명이 참여하는 대단히 큰 행사이고, 특히 산간지역 농촌에서 개최되는 면민의 날 행사 특성상 참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노인들로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최측 등의 최대한의 엄격한 점검과 운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대표적으로 지자체는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라는 안전관리현장에서 그 임무를 정하고 있기에 행사 추진의 주체들은 노약자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치밀한 점검의 노력과 함께 행사 끝까지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고, 방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무대에 댄스경연대회를 열기 위해 사람들을 등단을 시켰으면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앞을 응시하는 행태로 무대후면의 낙차의 인지가 지속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안전관리계획에 있는 책임자들의 임무는 더욱더 중요하였습니다.

상시적으로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참여자들의 활동적인 댄스경연이 펼쳐진 상황이 되면 무대주변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의 집중적인 임무 활동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안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약자 등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은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상을 잃은 것은 물론 평생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생을 살아가야할 상황입니다

사고의 정도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발목은 분쇄 골절로 철심 수술과 원팔꿈치는 사고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20일 가까이 이상을 기다리면서 상태를 보고 나서야 수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대절단, 뼈 분쇄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등 3시간 가까이 대수술을 할 정도로 훼손정도가 심하였습니다. 팔수술부위는 척골신경 관절강직, 운동제한 장애의 후유증을 걱정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해를 입어 경제적 안정을 위해 꾸준히 다니고 있었던 직장도 잃게 되었고, 앞으로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재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가족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수술비 등과 상해에 대한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는 심신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행사 주최 성수면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2차가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발생에 주최측의 책임이 없다는 성수면장의 태도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기분을 난생 처음으로 느껴봅니다. 성수면장은 이번 행사에 주최자로서 사고발생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나 위로, 사고발생 수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사에 초대해 놓고 자기 손님이 다쳐서 병상에서 치료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행사 초청자로서 진정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주민의 위한 면정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책임회피, 전가, 표리부동 등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높은 성벽을 쌓아 놓고 행정과 싸워볼테냐 순수히 체념해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만 피곤해진다고 경고하는 공권력의 느낌을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조롱에 가까운 태도와 함께 받아야 하다니 실로 역장이 무너집니다.

※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이웃인 다른 주민들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최측의 진정성 있는 사고발생 사후조치가 있을때까지 알려나갈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사건개요

일 시 : 2023.10.3.(화) 16:30분경

장 소 : 진안군 성수면 공감센터 행사장 무대 뒷면 공간('23년 면민의 날 행사)

피해자 : 박00, 70세

피해내용 및 부상상태

피해자는 2023.10.3.(화) 16:30분경 진안군 성수면민의 날 행사장 무대에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대에 진행자가 주민들의 등단을 요청하여 피해자도 무대에 올랐으나, 안전시설과 조심하라는 안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떠밀려 뒷걸음치다 무대 후면의 낙차(1.2m)가 있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 다음과 같은 부상 및 손해를 입었음

사고로 인하여 왼쪽다리 발목 분쇄골절과 왼팔도 분쇄골절로 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전주인근 병원에서 강도 높은 2차례 걸친 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 등으로 다니던 직장(아파트 청소미화)을 잃게 되었고, 다리 철심수술과 팔 인공관절 삽입 등 치료 후에도 상해에 대한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일상생활은 물론 평생의 후유증으로 고단한 노년의 삶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신이 아주 아프고 몹시 괴로운 상태임

사고원인 및 책임

제28회 성수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 향우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면단위 최대의 행사로 안전한 행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심의가 없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지만('23년 8월) 행사장 안전 관리자인 주최주관자(성수면장과 성수면체육회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행사무대의 낙상사고가 발생함

해당사고는 3가지면에서 행사 주최주관자 등의 안전사항 확인점검 및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최소한 한가지 조치만이라도 이행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였음. 안전불감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제를 관리해야할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낙상 사고발생으로 이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져야 할 것임

① 무대 뒷면벽과 맞닿아 있지 않은 행사무대 설치

면민의 날 행사 참여 연령이 농촌지역의 고령임을 고려해 볼 때 무대뒷면에 맞닿아 있지 않은 행사무대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았고, 행사무대에 오르면 앞을 응시하는 특성으로 뒷면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행태적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한 행사 주최주관자 등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안일한 무대설치가 큰 사고발생을 불러일으켰음.

행사 주최인 성수면에서는 행사무대 설치 도면 등 관련 자료 요청에도 행사에 있어서 안전을 요하는 가장 큰 시설인 행사무대 설치에 관한 어떠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무대설치 배치나 안전시설 유무 등 확인점검을 해야 하는 업무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

② 행사무대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치 미흡

설령 뒷면벽과 맞닿아 있지 않은 행사무대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추락방지 안전띠 및 안전 펜스, 추락조심 표지판, 안전요원을 무대 뒤 난간에 배치하는 등 최소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안전관리현장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 대책을 수립 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무대가 안전하도록 낙하방지장치나 손잡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노약자 등을 특별히 배려했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음.

더욱이 가을철은 축제행사가 많은 계절로 행정에서도 사고발생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시키고 위하여 행사장 점검활동을 실시하는데 '23년도 8~9월에 실시한 전북도 감찰활동에서도 진안은 무대시설 안전장치 미흡으로 적발되었음. 상급기관의 이러한 점검에도 면단위 가장 큰 행사인 면민의 날 행사무대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발생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주최주관측의 무대시설 안전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임.

노컷뉴스

전북도 지역축제 감찰, 안전관리 미흡 등 49건 적발

2023-10-11 11:35 전북CBS 최영국 기자 |

익산과 진안, 장수에선 무대시설 안전장치 미흡 등이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제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완료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026160>

③ 안전을 무시한 행사프로그램 운영

행사무대 앞 넓은 공간에서 댄스 프로그램이 충분함에도 주민을 행사 무대위로 올라오게 하는 율동 프로그램 강행 문제와 무대앞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등 안전문제보다는 흥미 유발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진행과 무대진입시 안전에 관한 고지 및 안전요원 인력배치가 선행되지 못한 결과로 낙상사고 발생을 초래하게 되었음.

사고 사후조치

① 행사 안전관리비 미가입 등 사고발생 조치 노력 미흡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행안부) 모든 축제행사의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행사추진에 따른 사고발생에 대해 피해자가 알아서 보험처리하라는 진정성 있는 사고 사후조치계획을 제시하는 노력 등이 미흡하였음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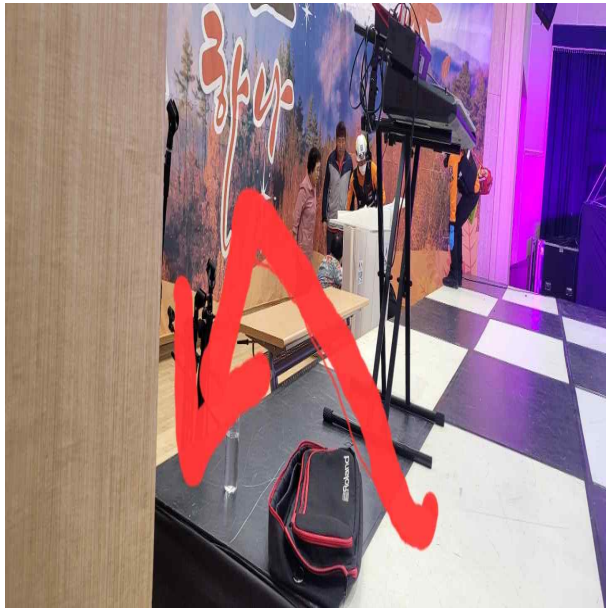
□ 모든 지역축제는 보험가입 권고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지역축제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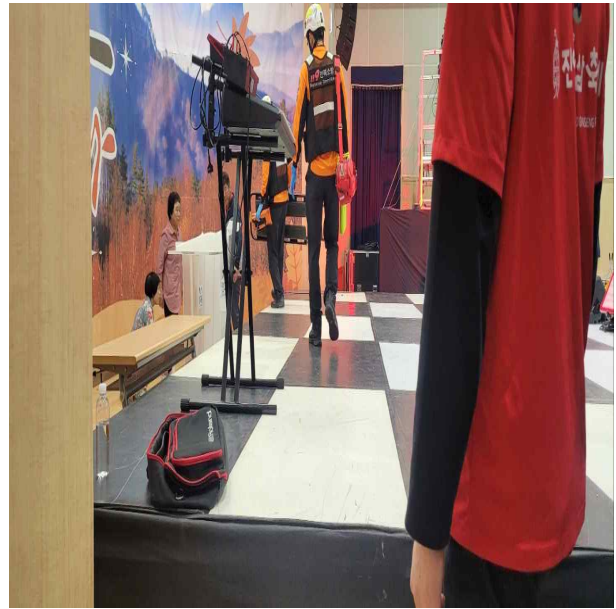
② 안전관리자의 사고원인 정식적인 설명 위로 미흡

안전관리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고초기에는 구두로 사고원인이 무대안전시설 미설치 원인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식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행사주최주관측의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답변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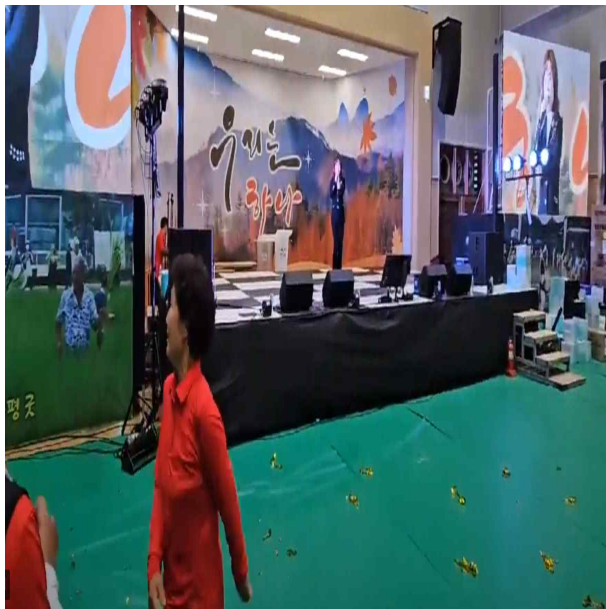
첨부자료 1 행사무대 관련 사진



행사무대 뒷면



사고당시 행사장 뒷면



행사무대 전경



무대앞 댄스 프로그램 운영

사고 진술서

사고명: 23년 상수면인의 날 행사내상사고
주민번호: 250210. [redacted]
성명: [redacted] 이 관계: 행사참가자(목격자)
연락처: 010. 1482. [redacted]
주소: 전주시 덕진구 장재길

아래와 같이 위 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합니다.

사고 일시

- 2023. 10. 3(화) 오후 4시경

사고 내용

- 소장이 전한 상수에서 23년 상수면인의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사실의 내용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대소를 주었고 사회자가 대소경연을 하기 위하여 무대위로 올라오라고 소개하여 여러 주민들이 무대위로 올라갔습니다.
- 그리고 대소경연대위 진행되는 도중에 무대위로 부상하는 사람 발생하였는데 멀리서 무대를 보면 외형상 무대였지만 소위 무대를 올라가보니 왼쪽 무대였는데 저리 부터 인물의 무대는 하중 있습니다.
- 실제로 젊은 사람들 보다 노년층이 많습니다.
- 1명이면 상수에 더 위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본인이 위 진술한 사고내용은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redacted] 이 [redacted]

사 고 진 술 서

사 고 명 : 23년 성수면민의 날 행사 낙상사고

주민번호 : 740407-

성 명 : 김

관 계 : 행사참가자(목격자)

연 락 처 : 010-8860-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아래와 같이 위 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진술합니다.

사고일시

-2023.10.3.(화) 오후4시경

사고내용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향 성수에서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인들과 “23년 성수면민의 날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무대 아래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춤을 추고나자 사회자가 열심히 호응
해준 고마움에 선물을 걸고 댄스경연을 제안했습니다.

참가를 위해서 어머님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앞쪽에서 한사람씩 시작을
하겠다며 나머지 참가자들을 뒤로 이동시키는 상황에 뒷걸음으로 무대 뒤로
가면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사고 내용은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진술자 :



성수면장 답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답변

1. 먼저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면과 성수면 체육회, 열린문화세상 이벤트 회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조, 시설물 점검, 안전사고 발생 때 대응을 위한 직원 배치 등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무대는 면민의 날 기념행사와 주민을 위한 화합한마당 진행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무대 위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써 행사 관계자 외에는 올라올 수 없는 자리였으나, 화합한마당 진행자가 행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즉석에서 댄스 경연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무대 뒤 높이 약 60cm)
4. 보험 가입은 성수면 체육회와 열린문화세상 이벤트 회사 간에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이벤트 회사가 보험 가입을 하기로 하였으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사고 후 알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5. 안전관리자의 사고원인, 정신적인 설명, 위로 등이 미흡하였다고 하나 사고 발생 후 병원에 위로 방문을 하였음에도 보상 등이 없는 방문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 측에 최선의 치료를 부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6. 진안군 성수면 체육회 규약(2021.5.7. 개정) 제40조에 의거 면민의 날은 성수면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재답변

【피해자측에 이런 답변은 2차가해입니다. 전 가족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별로 안 와닿네요. 피해자들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말들이 없어보이네요
2. 성수면민의 날은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큰 행사임을 보여줍니다. 사고 당일 무선 통화(부면장)로는 무대설치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부면장하고는 소통은 하시는지, 녹음된 파일이 없는걸로 판단하시는듯 하네요
3. 관계자외 올라올 수 없는 무대라고 한다면 안전관리책임자(면장 등)즉석 댄스경연대회를 제지시키거나 무대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시키거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무유기를 하신건 아닌가요?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무대 높이는 1.2m정도입니다.
4. 보험가입여부는 행사초청자인 성수면장은 모르겠냐? 이런걸 왜 알려주죠? 이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5. 사실과 다르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행사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병원치료비용이 걱정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배상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참 왜곡하시네요
6. 모든 책임은 성수면 체육회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쪽가서 따져라?